

# 몽골서 한국 민속 예술공연 선보인다

국립민속국악원, 몽골 세계유목민문화축제 초청받아... 몽골 국립예술단체 등과 업무협약도 체결기로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이 오는 19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리는 세계유목민문화축제(Nomads WCF)에 초청받아 한국을 대표해 민속 예술 공연을 펼친다. 몽골 세계유목민문화축제는 많은 국가들이 참가하여 각자의 문화를 선보이고 국경을 넘어 교류하는 국제적인 문화행사로, 지난 2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과 몽골 문화부 친바트 너밍 장관은 한국과 몽골의 문화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23-

2026 문화교류시행계획서'를 체결했다. 이 협약의 후속 조치로 민속국악원이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이번 공연은 한국의 전통음악과 문화를 몽골과 세계 각국에 알리고, 한국-몽골 간 문화교류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국립민속국악원은 몽골의 국립예술단체 등과 업무협약(MOU)도 체결할 예정이다. 몽골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음악교육기관인 몽골 국립콘서바토리(The Mongolian Conservatory),

몽골 경찰청 소속 몽골음악 연주단체인 국립경찰청실드앙상블(The National Police Agency of Mongolia Suld Ensemble) 등과의 협약을 통해 한국-몽골 간 전통음악의 교육, 연구, 공연 분야에서 지속적인 업무 협력을 이어가고자 한다. 국립민속국악원 김중현 원장은 "이번 공연과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의 전통음악과 문화가 국제무대에 더욱 알려지고 인정받을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전북 관광기업 도약지원 사업 3개 기업 선정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Level-up 프로젝트 추진 협약... 1:1 맞춤형 전문 컨설팅·지원금 등 지원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는 '2023 전북 관광기업 도약지원 사업(Level-up 프로젝트)'을 통해 최종 3개 기업을 선정,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기반 관광기업의 판로개척과 마케팅 지원을 통해 우수기업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전라북도에서 3년 이상 관광업을 운영 중인 사업체로, 사업에 대한 적합성과, 지속성, 전북 관광산업 발전 기여도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선정 아이템으로는 '문화한옥체험'의 전통 고택에서 즐기는 위케이션 및 웨디 클럽스 개발, '전주전통술박물관'의 관광·문화 커뮤니티 공간 구성을 위한 전통 누룩 전시기획, '전주세종여행사'의 도내 MICE 전문 여행사로 발돋움하기 위한 온라인 마케팅·테크니컬 투어 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1:1 맞춤형 전문 컨설팅과 사업화 지원금 1,000~1,500만 원이 차등 지원된다. 또한 센터에서 진행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통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는 '2023 전북 관광기업 도약지원 사업(Level-up 프로젝트)'을 통해 최종 3개 기업을 선정,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 기업이 성장하는데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화 전략을 제 공함으로써 도내 관광기업들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 군산시, 한 여름밤의 동네콘서트·동네문화카페 체험·전시회

군산시는 오는 19일 오후 3시부터 2023년 군산시 평생학습 성과공유를 위한 '한 여름밤의 동네 콘서트와 동네문화카페 체험·전시회'를 미룡동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 여름밤의 동네콘서트'와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는 군산시평생학습관과 동네문화카페 수강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공연과 체험·전시회를 통해 긴 장마와 무더위 등으로 힘들고 지친 시민들을 위로한다.

한 여름밤의 동네콘서트는 19일 오후 19시부터 미룡광장(군산대학교 정문앞)에서 총 7개 팀이 참여해 통기타, 하모니카, 플루트, 오카리나, 합창 등 평생학습을 통해 배우고 익힌 실력을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는 19일 오후 15시부터 동네문화카페 3개소(미룡동 커피와 카페 라비야파리, '커피마미'에서 캘리그래피, 우드버닝, 라탄공예, 전자아트, 포크아트 등의 60여

개의 작품 전시와 함께 우드버닝, 모던캘리, 라탄공예, 포크아트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선착순 30명에게 체험의 기회도 제공된다. 김종필 교육지원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평생학습 성과공유를 통해 군산시 평생학습이 늘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의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6월 동네문화카페 체험행사를 통한 수익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액 기부해 평생학습의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계기가 된 바 있다. /군산=김관근 기자

# 전북대, 총상금 800만원 규모 문학상 공모

가람 이병기 청년 시문학상  
최명희 청년 소설문학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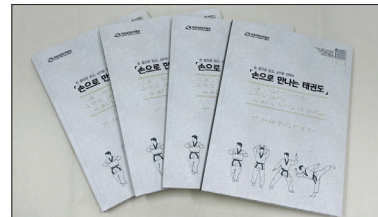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총상금 800만원 규모의 문학상인 '가람 이병기 청년 시문학상'과 '최명희 청년소설문학상' (이하 문학상)을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전북대신문방송사와 혼불기념사업회(대표 김병용)·최명희문학관(관장 최기우)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문학상은 오는 31일까지 작품을 접수해야 한다. 공모 분야는 대학생과 고등학생 부문 각각 시와 단편소설이며, 시는 시조 포함 세 편 이상, 소설은 한 편 이상이다. 작품은 전북대신문사 편집국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다. 한편 전북대학교는 한국 문학사에 기념비적인 공로를 세운 '난초 시인' 가람 이병기 선생과, '혼불'의 최명희 작가를 추모하고 문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2001년부터 문



문학상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전북대신문방송사(063-270-3536)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태권도진흥재단, 시각 장애인 위한 '점자 태권도 도록' 발간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종갑)은 시각 장애인들이 태권도를 보다 쉽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손으로 만나는 태권도' 점자 도록 및 '수어 전시해설' 영상을 제작, 국립태권도박물관에 적용했다. '손으로 만나는 태권도' 점자 도록에는 국립태권도박물관 소장 자료와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에 관한 설명, 태권도 동작을 축약화해 점역하는 것은 물론 각 페이지마다 음성변환 바코드를 반영해 해당 페이지 내용을 음성으로도 들을 수 있도록 제작했다. 특히, 점자 도록은 태권도 단체뿐 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특수 도서관, 복지관, 맹학교 등 100여 곳에 발송해 시각 장애인들에게 태권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보를 더욱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확대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수어 전시해설' 영상을 제작, 국립태권도박물관에 있는 무예도보통지와 태권도 보



호구 등의 전시물에서 QR코드를 인식하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종갑 이사장 직무대행은 "점자 도록 발간과 수어 전시해설 영상 제작은 장애인들이 태권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며 "태권도원을 찾는 장애인들이 문화 향유권을 누릴 수 있도록 장벽 없는 환경 조성(Barrier-Free)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성 기자

# 고창문화관광재단, '고창 청년기획단' 23일까지 모집

고창문화관광재단(이사장 심택섭)이 지역 내 청년들의 성장과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해 '고창 청년기획단'을 오는 23일까지 온라인 접수로 모집한다. 고창군 청년 기본 조례에 의거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청년 중 △고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청년 △고창군 소재에 있는 직장 재직 청년 △고창군 청년 네트워크 동아리 △청년 정책협의체 등에 소속된 청년 △청년 관련 문

화행사 및 축제에 경험이 있는 청년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모집인원은 총 10명 내외로 선착순 모집하고,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회의 및 역량강화 교육 이수 후 참의·실험적 활동 기획과 실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방법은 고창문화관광재단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zboxer7@gcf.or.kr)으로 접수하면 된다. /고창=김영성 기자

